

철도경찰, 광명역 흉기난동범 검거

- 금일 아침 광명역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를 현장에서 제압 검거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소속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8월 31일 08:18경 광명역 서편 매표소 앞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을 철도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밝혔다.
 - A씨(남, 50대)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(스크래퍼, 바닥에 꺾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)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는 등의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.
 - * (여객 2명 부상정도)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, 119 응급치료 후 귀가한 상태
- 철도경찰(광명센터 소속)은 8월 31일 08:18경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하여 흉기를 들고 여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,
 - 철도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“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”면서,
 - “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	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길호	(044-201-4545)
<공동>	철도특별사법경찰대 기획과	책임자	과 장	송창용	(042-615-5863)
		담당자	기획계장	안승용	(042-615-5864)